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시론>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고 있다

- 농민을 두번 죽이는 YS의 신물나는 자화자찬

김 당(운영위원, 시사저널 특집부 차장대우)

김영삼 정부가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끌은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것은 국민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체험으로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화자찬도 이쯤되면 가히 목불인견이다.

정부는 6월14일 농정개혁 추진 2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농정개혁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농정개혁에 의해 지금 농어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다는 말인가.

우선 "쌀시장 개방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했다가 식언한 것이 3년 전의 일이다. 국회는 그런 식언을 설거지하느라 지난 94년 'UR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UR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2년이 다 되도록 △잘못된 개방조건을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제4조) △특별긴급관세 부과(제7조) △영세농 보조, 유기농 보조, 농림수산업 재재 지원 등 WTO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지원가능한 정책규정(12조)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이 UR이행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을 거부하고 있다.

또 "수입쌀은 전량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1년 전의 약속을 식용쌀을 도입하겠다고 식언한 것도 엇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는 쌀이 부족하니 양곡자금을 한담시키고 '쌀 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파상농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매년 쌀값을 동결하고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해 경지면적을 감소시키는 등 농민에게 쌀 감산정책과 영농 포기를 강요한 것이 김영삼 정부가 아니던가.

그 결과 95년 현재 농정지표는 △식량자급율 28.5%(쌀을 제외한 양곡자급도 9%) △주식인 쌀 자급률 95.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92년 현재 1천 3백27만석이었던 정부 재고미가 95년 현재 454만석으로 줄었고, 96년 10월말 예상 재고량은 278만석에 불과해 국제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600만석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농지와 식량 자급도는 갈수록 줄어들고, 농산물 수입과 농어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도대체 무엇이 돌아오는 농촌이란 말일까. "땅을 많이 가진 자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던 멋진 말을 바꿔 어느날 갑자기 "누구든지 땅을 가져도 좋다"는 식으로 도시인의 농지거래를 부추기더니, 이제는 논 한가운데까지 들어선 러브 호텔을 찾는 외지인을 보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농민들이 들으면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다.

사업보고

(5월 셋째주~6월 셋째주)

□ 차기 운영위 7월4일 □

지난 6월8일과 9일 운영위원, 사무국 상근자, 자원봉사자 등과 가족 20명이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장호순 운영위원 댁에서 MT를 가졌습니다. 이날 예정되었던 31차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이 분산, 참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대화와 농구게임 등으로 초여름밤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9일 아침에는 근처 산에 등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무산된 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4일 오후6시30분에 가질 예정입니다.

□ 인권영화제 추진중 □

올해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인권영화제 준비가 더디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미국과 남미, 대만, 일본 등지의 외화 10여편을 상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사에 대해 인권영화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민운동지원기금과 프로젝트 계약 체결 □

지난 12일, 시민운동지원기금과 인권영화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지원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민운동지원기금의 96년 하반기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인권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은 5백만원이고, 이중 4백만원은 7월 전에 1백만원은 사업보고서 제출후 받게 됩니다.

□ 신양중 대책위 참가 □

최근 서울 광진구 신양중학교에서 일어난 교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인권, 여성단체등은 '신양중

성추행 교장 사퇴와 학생인권수호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보고서 작성을 추동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적극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 7월부터 회원통신 새롭게 발전 □

사무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발행해 오고 있는 '회원통신 사람사랑'을 다음달부터 확대개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4쪽 짜리 내용의 회원통신이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단신성 소식 밖에 신지 못한 한계가 있어 운영·자문위원들에게 충실히 사업을 소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새롭게 단장할 회원통신에는 기존의 사업보고, 재정보고, 자료소식을 보강, 강화하고 이외에 시론, 동정, 이달의 인권흐름, 기획기사 등을 실어 15쪽 내외의 소식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학생 인권학습 진행 □

사무실에서는 6월18일부터 대학생인권운동연대(준) 학생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원봉사자 3명 등 10명 이내의 교육생들에게 5주동안 인권의 역사/주요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인권운동의 이론적 쟁점들/인권운동론 등 초보적인 내용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사무국에서는 이런 학습 모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인권정보자료실 최은아씨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편, 이번 여름에도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하루소식>

인터넷의 바다로

웹사이트 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E-mail 주소: rights@interpia.net

로 실습교육이 7월부터 8월, 한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법대학생회 등 연수도 진행됩니다.

□ 동정 □

- 서준식 대표가 Human Rights Watch 주최의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뉴욕으로 지난 12일 떠났습니다. 서대표는 매일 영화를 보면서 작품 선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3일 가족과 함께 귀국할 예정입니다.
- 백승헌 운영위 간사가 지난 1일 민변 사무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는 6월25일 둘째 아이도 낳고 합니다.
- 윤기원 운영위원은 민변 사무차장으로 피선되었고, 아울러 신화합동법률사무소에서 7월초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 박래군 사무국장이 6월9일, 청년단체 문화정치 유토피안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

한 '인권운동 길찾기' 심포지엄에서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 김수경 인권홍보실장(인권하루소식 편집인)은 5월27일 서울대 진보법률학교에서 '소수자의 권리'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독자 확대!

주위 분들에게 <인권하루소식> 구독을 권유해주시고, 날로 독자가 줄어들고 있어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시고.

□ 영문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인터넷에 영문소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 역량이 부족한 탓입니다. 1주에 A4 용지 1매 정도 번역해주시는 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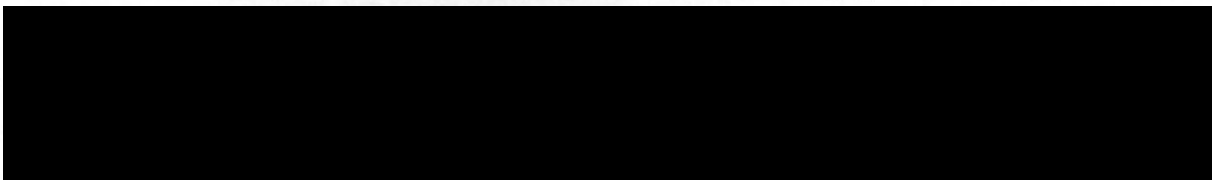
96-05분기 재정보고('96 05/16-06/15)

전기이월: 86,975원

수 입		지 출	
자문·운영위원회비	3,287,020	활동비	3,240,000
하루소식구독료	2,039,200	사업비	1,832,390
후원금	370,000	발송비	294,560
사업수익	289,800	사무비품	86,600
은행이자	1,485	사무실유지(집세포함)	429,334
기타수익	189,800	출장비	10,100
		야근자·자원봉사자 식대	382,000
		전화요금	648,628
		차입금상환	250,000
		사무기기	330,000
계	6,177,305원	계	7,503,612원

최종결산: -1,326,307원

<96년 5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소식

앞으로 세계주거회의의 관련 자료를 연재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료실에 연락하면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창립기념 토론회/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준)/ 88쪽/ 자료집/ 1995.10/ ko

세계주거회의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주거권의 보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주거회의의 준비를 위해 한국의 NGO, CBO의 연대조직을 형성 할 것을 주제발표문인 「인간적 주거환경과 주거권」에서 주장하고 있다. 보론으로 「HABITAT II 96이 스탠볼회의의 의의와 준비」(유재현), 「'96 세계주거회의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김영준), 「세계주거회의에 바람직한 참여를 위한 준비」(박문수), 「세계주거회의의 준비와 참여의 필요성」(하성규) 등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 21세기 국민 주거권운동 방향/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109쪽/ 자료집/ 1996.2/ KO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96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주거연합의 활동내용 외에 특별 보고서로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평가의견」(한국도시연구소), 「현 주택정책의 모순과 저소득 주민의 주거문제」(김영준), 「주택정책과 주거권, 주거운동」(한국도시연구소) 등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와 인간적 주거환경/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120쪽/ 자료집/ 1996.3/ KO

한국 민간위원회의 세계주거회의 토론회자료집으로 한국 민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각 민간단체들의 보고서를 실고 있다.

「세계주거회의와 한국민간위원회의 활동방향」, 하성규 외 민간보고서로 1. 한국의 도시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생태도시 건설에 대한 제

언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2. 시민의 집단활동과 지방자치체 (박문수, 아시아주거연합한국위원회) 3. 지속가능한 교통의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 (임삼진, 녹색교통운동) 4.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의 현황과 대책 (조홍식, 참여연대) 5. 한국에서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의 현실과 전망 (조광희, 민변) 6. 주택문제의 현황과 대책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7. 주택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조건과 해결의 접근방식에 대하여 (배기남, 민주노총)

◆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아시아 가난한 사람들의 견해/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30쪽/ 자료집/ 1996.3/ KO

필리핀에서 총 9개국 37명(한국 7명)이 참석한 세계주거회의 아시아 지역 워크숍의 보고서. 특히 한국 참가자들은 행동과제와 가난한 사람들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1. 필리핀 워크숍 2. 한국민간위원회 참가 개요와 소감 3. 한국의 주거현실과 우리의 행동과제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국의 보고 5.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견해

◆ 이스탄불로 가는 길/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109쪽/ 자료집/ 1996.4/ KO

한국민간위원회의 세계주거회의 준비를 집대성한 자료집. 세계주거회의의 의의와 목표, 시민주거 행동지침, 세계주거회의의 준비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한국민간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고 있다.

1. NGO Forum을 위한 참가안내 2.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회의 및 아시아 지역의 행동계획 3. 인간정주에 관한 의제(HABITAT AGENDA)등

◆ HABITAT II 참가선언 및 심포지움/ HABITAT II 한국 민간위원회, 지방정부·의회 참가단/ 15쪽/ 아티클/ 1996.5/ KO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건설을 목표로한 세계주거회의의 한국참가단(민간위원회와 지방정부,의회 참가단)의 공동선언문 및 순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자치단체의 역할과 HABITAT II 의제실현을 위한 민간단체의 전략등을 실고 있다.